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길

욕기를 중심으로

성인경

사람들은 입 밖으로는 잘 나타내지 않지만 마음속에 수 만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인생의 본질과 세상과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 하루에도 수 십 번 씩 소리 없는 내성적이고, 회의적인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과 악이 득실 거릴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수 만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첫째는 ‘선한 사람은 고생하고 악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세상이 무질서하고 악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도대체 이런 악하고 무질서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는 과연 도덕적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철학자로 통하는 동방 사람 욥이 제기한 회의적인 질문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계(disorderliness of the world)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도덕성(viciousness of God)에 관한 것입니다.”(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122-123)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행을 한 번 떠나 보겠습니다.

1. 욥의 두 가지 질문

(1) 세상의 무질서와 악에 대한 질문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무질서와 인간 세상의 악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것은 12장, 2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6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정의가 사라진 곳이라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 이니라.”

21:6-7에서는 뒤틀린 세상의 질서, 즉 악인들이 장수하고 득세 하는 것을 비난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하나.”

21:8-13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보응의 법칙’ 혹은 ‘인과 법칙’이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21:14-16에서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 분을 “섬길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기까지 한다고 한탄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의 질문과 의심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과연 그 분이 계시다면 왜 침묵 하시는가?’ ‘악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도덕성의 회의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욥의 질문은 하나님의 비도덕성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도덕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은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17-18에서 욥은 자신이 “이유 없이” 혹은 “까닭 없이” 벌을 받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9: 19-24에서 욥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사이에 벌을 내리실 때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욥의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최고로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그는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혹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정당한 재판관이 아니며 오히려 범죄자가 아닌가?’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2. 네 친구들이 주는 대답

(1) 친구들의 대답은 보응의 법칙이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innocent suffering)?’에 대한 친구들의 대답은 짜늘한 ‘보응의 법칙(the measure for measure principle)’ 혹은 악은 신의 뜻이라고 하는 ‘신정론(theodicy)’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욱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고통을 들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욱의 가슴에 못을 박은 말을 한 것도 알고 보면 다 악한 ‘시대정신(zeitgeist)’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한 마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잠언 11:31) 해석하면, ‘의인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도 모르느냐? 잘한 일은 잘한 만큼 보상 받고 잘못된 일은 잘못된 만큼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느냐?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망한다는 것도 모르느냐? 이 세상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보응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만약 네가 의롭다면 지금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리가 없으며,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숨기고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 모든 불행과 고난의 원인은 죄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보응의 법칙’은 그야말로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과율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는 논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문제는 숨 막힐 정도로 냉혹하고 짜늘하고 철저한 그물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그물망에서 빠져 나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응의 원리 근거에는 신정론이 있습니다. 신정론(神正論, theodicy, theos(신) + diky(정의)이라는 것은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호신술(護神論)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려는 철학적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1)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그는 무능하다(If God is just, He is impotent), 반대로, 2)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의롭지 못하다(If God is potent, He is not just). 즉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동시에 전능하시다면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그것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자신들의 피조물들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은 두 가지 중 하나가 결여되었거나, 둘 다 결여된 존재다.”(C. S. Lewis)

(2) 친구들의 말은 별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욱의 친구들의 대답과 공격에는 차이가 있는가? 라브리 학생 김현우의 분석을 빌리면 욱의 친구들의 대답과 공격에는 다음과 같은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응보의 법칙’ 혹은 ‘신정론’을 고지식하게 믿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테만 사람 엘리바스(Eliphaz the Temanite)는 경험적인 사람인데, 체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

느니라...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뻗하였느니라...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욥기 4: 12-17)

그는“나 같으면.....하리라.”(욥기 5:8)라는 말을 즐겨 쓰며, 생활 속의 경험 중심적인 책망을 하는데(5: 27), 그의 경험주의적인 지혜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모를 고통과 시련조차도 오로지 욥의 개인적인 행위 자체의 잘못에서 온 것이라고 응보의 법칙과 신정론을 둘러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욥기 4: 6-11)

2)수하사람 빌닷(Bildad the Shuhite)은 전통과 습관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과거의 전통을 내세워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욥기 8:8-22)

빌닷도 전통을 내세워 조상들이 깨달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망하고,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악한 자는 붙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화평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는 무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고난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나 순전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응보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나아마 사람 소발(Zophar the Naamathite)은 교리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For you say, My doctrine is pure, and I am clean in God's eyes.”(욥기 11: 4, ESV)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같이 보이나 사랑이 없는 매우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11: 7-20) 이 사람의 주장은 한 마디로“악자필멸(惡者必滅)”입니다.

소발은 처음에는 욥에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나중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갖지 않고.”(욥기 11:14-15)라는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욥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나중에는 병과 재난과 모든 고통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 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 업이니라.”(욥기 20:29)며 냉정한 응보의 법칙을 선언하고 맙니다.

4)부스 사람 엘리후(Elihu son of Barakel the Buzite)는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한 좋은 태도, 즉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욥기 32:11-12)라는 말을 볼 때 고통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신중한 사람이며, 또한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arguments)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매우 치밀한 이론가임에 분명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순전하여 불의가 없다.”(욥기 33:9-12)고 주장하는 것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욥기 34:31-32) 하며 회개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데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욥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보

응의 법칙'과 신정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욥기 34:10-12)

3.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응수는 무엇이 다른가?

욥을 위로 하러 온 네 친구들에 대한 “욥의 응수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현창학)고 합니다. 그 네 가지는 1)하나님을 향한 탄식, 2)친구들에 대한 질책, 3)자신의 결백 주장, 4)보응의 원리 부정 등이라고 합니다. 현창학의 기본 분석에 간단히 설명하면 추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죄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랄 수 없으며, 그 분은 잔인한 신이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라고 항변합니다. 욥기 3:23-26; 6:1-3, 7:11-21; 10:1-22; 13:17-28; 16:6-17; 19:1-12; 30:1-31 등이 그런 구절들입니다. 예를 들어, 3:23-26이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 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2) 친구들을 질책하는 말도 많습니다.

12:1-4; 13:1-12; 16:1-5; 16:18-17:2; 17:6-16; 30:1-8 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 압권이 몇 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한다고 찾아온 자들이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나 지당한 말씀” 이나 “헛소리”를 하고 갈 때는 환자들이나 고난을 당하는 자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도 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You whitewash with lies; worthless physicians are you all.”(욥기 13:4)

“너희는 모두 고통스러운 위로자로구나.(miserable comforters are you all!”(욥기 16:2)라는 말입니다.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I would have disdained to put with my sheep dogs.”(욥기 30:1)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A base and nameless brood, they were driven out of the land.”(욥기 30:8)

(3) 자신은 무죄(innocence)하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무죄한 자의 고난(innocense suffering)’이라고 항변합니다. 6:24-30;

23:1-7; 31:1-40이 바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 중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욥기 31:33-35)고 강변합니다.

사실, 하나님도 욥이 “의(義)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 말하신 적이 있고(욥기 1:1, 1:8, 2:3), 욥 자신도 “아직도 나의 의가 견재하다.”(욥기 6:29)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말은 아니며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사죄 제사를 늘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욥기 38:2)

4)만약 ‘보응의 원리’ 혹은 인과율의 법칙이 “악인은 무조건 패망 한다.”와 같은 것이라면, 그런 이론은 “공허한 빈껍데기(empty nothing)”이며 “거짓(falsehood)”일 뿐이라고 합니다.(욥기 21:34)

왜냐하면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악인이 형통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을 직접 들어봅시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욥기 21:30,31)

욥은 만약 이러한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경직된 ‘보응의 법칙과 같은 것을 이 세상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도 “불의(unjust)”하시며, 그 분이 창조한 세상도 무의미한 것이라고 끝까지 항변합니다.(9:13-24; 12:5-25; 21:1-34; 24:1-12).

4. 하나님의 대답

(1) 세계의 무질서와 악에 대한 욥의 의심에 대해 하나님은 ‘에차’(상당, 설계, 계획)라는 사상으로 변호하십니다.

1)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에차’(상당, 설계, 계획)에 의해 지어졌다고 방어합니다.(욥기 38:2, 42:3)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차)’을 흠어 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욥기 38:2, 현대어)라고 묻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에차)’을 가리는 자 그 누구냐고 말입니다.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 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욥기 42:3, 현대어)

2)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은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으며(불가해, unfathomable)하며, 탐지할 수도 없는 것(불가사이, inscrutable)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세계의 기원(욥기 38:4-15), 우주의 섭리(욥기 38:16-40:2), 동물의 생태(욥기 38:39-39:30)에 대해 약간의 파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총체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자연의 신비한 현상은, 비록 인간은 잘 모르더라도, 모두 질서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궤를 이탈한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에차)'에 의한 것입니다. '에차'가 하나의 헤아릴 수 없는(unfathomable) 우산으로서 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이며, 그 세계는 완전한 질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2) 욥의 하나님의 도덕성의 회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미쉬파트(정의)'로 변호하십니다.

1) 하나님은 욥에게 “너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느냐?”, “네가 아무리 떼를 쓰고 항변을 해도 나는 악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그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악마’도 아니며 범죄자가 아니야.”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공의(미쉬파트)’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나를 범죄자 취급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전도서 40:8-12, 개역개정)

2) “하마”와 “악어”로 번역된 “브헤못”과 “리브야탄”(40:15-24, 41:1-34)은 “두 괴물”로 통하는데, 바로 그 괴물을 굴복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대단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범죄자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계 질서의 주권자이며, 공의(公義)의 집행자이며, 전능자이며, 선한 자라는 것을 증거 합니다.

이것은, 체밋(M. Tsevat)이 적절하게 잘 표현했듯이, “압도의 교육(education of overwhelming)”이었습니다.(현창학, 121) 욥의 입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경이로운 분(things too wonderful for me, NIV, NRSV)”이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에 완전히 압도당하도록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극한적인 고난을 받거나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absence)’ 같고, ‘침묵하시는 것(silence)’ 같고, ‘숨어있는 것(hiddenness)’ 같기 때문에 그 분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나, 그 분은 우리가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극한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당사자 욥은 잘 몰랐지만, 늘 그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3) 보응의 법칙(the measure for measure principle) 혹은 ‘인과율의 법칙(a web of causality principle)’은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지만, 클라인스(D. J. A. Clines)가 잘 지적한 것처럼, “보응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그 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내재하는 도덕성이 엄연히 있으나 그것을 너무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보응의 원리를 지나치게 일괄적이거나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서 오는 문제가 많고, 2)결국 옳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보응의 원리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3)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즉, 법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예차'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예차'는 '하나님의 미쉬파트' 혹은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작동하는 신적 도덕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창학 교수가 잘 지적한대로, 체밋(M. Tsevat)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응의 원리가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하나님은 도덕이 없는 혹은 '도덕과 무관한 분(amoral God)'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덕을 초월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체밋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옳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의로우신(a just god), 불의한 신(무 unjust god)도 아닌 그냥 하나님(God)일 뿐이다."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118, 119)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태도

욥(Job)은 심각한 회의와 고난 앞에서 크게 세 가지 태도와 직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1) 주변의 여러 친구들이 말하는 거짓 신념과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유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풍미하는 온갖 잘못된 시대정신(zeitgeist)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욥기 21:34) 자칫 이런 거짓 신념과 사상에 유혹을 받으면 대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짓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된 각 이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2)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대답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옳도 한 때는 친구들이 제대로 대답을 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잘난 체를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옳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옳에게 화를 낸은 옳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욥기 32:1-1)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I also will give my answer; I also will declare my opinion, RSV"(욥기 32:17) 똑똑한 옳의 말처럼, 아마 당신도 그 어떠한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가진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만만한 논리와 체험으로 자기만족에 빠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치(理致)를 어렵게 하는 당신의 한계를 보거든 미천한 입을 손으로 가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3)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진짜 대장부는 허리를 묶고 겸손한 사람이며(욥기 38:3), 자기가 “작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욥기 40:3-5) 진짜 대장부, 혹은 진짜 구도자는 욥처럼 “나는 작습니다.” 혹은 “미천합니다.”(“I am of small account(NRSV)“, “I am unworthy(NIV)“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욥이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5-6)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심각한 질문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욥처럼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대답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욥기 38:3)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게 꼬이고 어려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답을 갖고 계시고 그 대답을 정직하게 대화하시는 분이요, 대답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발견한 대로 말하면 이런 분입니다. “거기서는 정직자(正直者)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욥기 23:7)

이 말이 어떤 뜻인지, 한제호의 빛나는 통찰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그가 마침내 인간과의 대화를 단념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찾으려고 ‘계시의 황무지’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의 하나님과의 대화 청원의 절정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한제호,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p.287)

아무리 하나님이 대답을 갖고 계시고 대답 자체이시라 하더라도, 그 분에게 나아갈 때는 좋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회의주의와 고난 그리고 그것과 둘러싼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극복하시겠습니까?

- 1)주변의 거짓된 친구들의 달콤한 말에 속으시겠습니까?
- 2)여러분 스스로 잘난 체 하며 자기도취에 빠지시겠습니까?
- 3)아니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만나 주시며 대답만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를 대담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